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68

▶ 69회 예고
아쇼까왕은 왕궁 베란다에서 니그로다를 보고 불러들인다. 니그로다는 아쇼까왕에게 설법한다. 아쇼까왕은 니그로다가 수시마 형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놀란다. 아쇼까왕은 니그로다를 곁에 두고 싶어 하지만 그는 거절한다.



왕비 띠쉬아락시따, 악행 저지르다

수시마 부왕비가 몰래 숨어 사는 짠달라 천민촌에 경사가 났다. 도비왈라 집에 안개가 짙은 이른 아침부터 달리뜨들이 모여들었다. 수시마 부왕비 아들 니그로다가 마하바루나에게 머리를 깎고 출가하는 날이었다. 짠달라 천민촌이 생긴 이래 처음 있는 경사였다.

일곱 살이 된 니그로다는 어머니 수시마 부왕비와 도비왈라 집 뒤쪽 띳집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니그로다가 어머니 수시마 부왕비를 위로했다.

"어머니, 출가하더라도 목갈라나 존자님처럼 어머니를 잊지 않을 거예요."

"니그로다, 고맙기는 하지만 출가하면 이곳은 잊어버리고 수행을 잘하여 마하바루나 사문님 같은 아라한이 되어야 해."

수시마 부왕비는 진정으로 니그로다가 아라한이 되기를 바랐다. 니그로다가 네 살이 될 때까지는 왕세자로서 마우리아국 왕이 될지도 모른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으나 아쇼까가 대관식을 치르자, 포기해 버렸던 것이다. 또 하나의 이유가 더 있다면 니그로다가 마하바루나를 유난히 따랐다는 점이었다. 니그로다는 마하바루나가 띳집으로 와서 설법하는 날은 마을의 또래들을 만나지 않고 꼼짝을 안 했다. 마하바루나의 설법을 듣고서는 다 외워버리기까지 했다.

마침내 마하바루나는 수시마 부왕비에게 니그로다의 진로를 조언하기에 이르렀다.

"부왕비님, 니그로다를 출가시키십시오. 니그로다는 전생에 수행자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사문님, 어째서 그렇습니까?"

"불경을 한 번 보면 다 외워버립니다. 이는 전생에 닦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살벌한 왕궁에 들어가자니 위험하고, 차라리 출가하는 것이 니그로다에게는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니그로다는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아쇼까왕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잔인한 아쇼까왕을 어떻게 움직인다는 말입니까?"

"니그로다에게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니그로다로 인해 아쇼까왕이 자비로워진다면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왕궁에는 지옥 궁전이 만들어져 모든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저는 아쇼까왕에게 품은 원한을 버리겠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붓다께서는 원한은 원한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원한을 버릴 때만 원한이 사라집니다. 따라서 니그로다가 출가하려면 지금이 적기입니다."

마하바루나는 니그로다가 일곱 살이 되자 출가의 적기로 보았다. 붓다의 가르침에 대한 이해가 더 없이 깊어졌고, 특히 아쇼까왕이 날마다 6만 명의 수행자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등 어느 때보다도 수행자에 대해서만큼은 호의를 베풀고 있기 때문이었다.

도비왈라 집 마당에 달리뜨들이 북적거렸다. 마당 한켠에 마하바루나 법석용으로 조그만 단이 마련되었다. 이윽고 마하바루나가 단 위에 올라섰다. 니그로다는 단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마하바루나가 달리뜨들이 보는 앞에서 니그로다의 머리를 다 깎고 난 뒤 함께 단 위로 올라갔다. 이윽고 마하바루나가 말했다.

"여러분, 자비로운 아침입니다. 마우리아왕국에 자비가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에게 축복처럼 자비의 햇살이 비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마을에 살던 니그로다가 출가를 하기 때문입니다. 니그로다의 출가는 단순한 출가가 아닙니다. 니그로다는 이미 수행을 마친 사문이기 때문입니다. 니그로다는 여러분의 고통을 없애주고 삶을 편안하게 해줄 것입니다."



달리뜨들이 니그로다를 주시했다. 그러고 보니 니그로다는 어제의 니그로다가 아니었다. 얼굴에는 맑은 기운이 감돌았고, 가사를 걸친 몸에서는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위의가 풍겨 나왔다. 수시마 부왕비조차도 니그로다 사문을 바로 응시하지 못했다.

니그로다의 삭발의식과 마하바루나의 법문이 끝나고 나서도 도비왈라 집 마당에는 달리뜨들이 축제를 벌이듯 짜이를 몇 잔씩 마시면서 떠들고 춤을 추었다.

한편, 띠쉬아락시따 왕비 별궁에서는 사악한 음모가 꾸며지고 있었다. 띠쉬아락시따는 꾸날라를 탁실라로 보냈지만 만족하지 못했다. 꾸날라가 자신을 모욕했다고 여겼기 때문이었다. 띠쉬아락시따는 꾸날라의 아름다운 눈이 화근이었다고 생각했다. 꾸날라의 눈이 아니었더라면 자신이 반했을 리 없었을 것이라고 믿었다. 띠쉬아락시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꾸날라의 눈을 없애버린다면 그를 잊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띠쉬아락시따는 궁리 끝에 우두머리 시녀를 불렀다.

"탁실라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들었느냐?"

"꾸날라 부왕님께서 잘 통치하시어 대왕님께서 칭찬하셨다고 합니다."

"나도 그 얘기는 직접 들었어. 대왕님께서는 격려차원에서 특사를 보내신다고 했어."

"왕비님께서 보내신 것인데 다들 모르고 있더군요."

"누구한테도 그 얘기를 하면 안 돼."

"왕비님, 걱정 마셔요. 제가 빠딸리뿌뜨라 왕궁에서 사는 것도 다 왕비님 덕분인데요. 저는 은혜를 꼭 갚을 거예요."

"그래?"

띠쉬아락시따가 은혜를 갚는다는 말에 입을 다물었다. 당장 하고 싶은 말이 있었지만 참았다. 그러자 우두머리 시녀는 띠쉬아락시따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했다. 그녀는 띠쉬아락시따에게 은혜를 갚을 만한 이유는 많았다. 그녀는 띠쉬아락시따 본가에서 허드렛일을 하는 수십 명의 시녀들 가운데 유일하게 뽑혀서 왕비별궁까지 따라왔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왕비별궁의 우두머리 시녀가 됐기 때문에 크게 성공한 셈이었고, 일반 시녀들에게 부러움을 크게 샀다.

"대왕님 침전으로 보내주고 싶은데 어때? 대왕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언제든 가능해."

"왕비님, 그곳으로 가면 일반 궁녀가 되는 것이죠?"

"거기서도 우두머리 궁녀가 돼야지. 그렇지 않다면 내가 어떻게 보내겠어."

"어머나! 왕비님, 고맙습니다."

띠쉬아락시따는 아쇼까왕에게 미리 우두머리 시녀를 부탁해 놓은 바 있었다. 아쇼까왕이 침전의 우두머리 궁녀가 게으르다고 불평했을 때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부탁했던 것이다.

"침전 침실은 정말로 아주 중요한 곳이야. 침실에 있는 상자에 국새가 들어 있거든. 그러니 침실 청소를 담당하는 우두머리 궁녀란 왕궁의 모든 궁녀들 가운데 으뜸인 것이야."

"정말로 제가 우두머리 궁녀가 되는 거예요?"

"너를 그곳으로 보내는 이유가 있어."

우두머리 시녀는 꿈을 꾸듯 황홀해했다.

"왕비님, 이유를 알고 싶어요."

"그렇지. 너는 내 분신이나 다름없거든."

"왕비님, 은혜를 갚는다면 무슨 일이라도 하겠어요."

"쉬운 일은 아니야."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저는 해내겠어요. 쉬운 일이라면 누군들 못하겠어요."

"내가 너를 처음부터 잘 보았어. 본가에서 너를 본 순간 마음에 들었거든."

"저도 왕비님을 따라가고 싶어 기도했어요. 날마다 강가강으로 나가 시바신께 기도를 했더니 들어주셨어요."

띠쉬아락시따가 우두머리 시녀에게 조언을 구했다.

"꾸날라가 나를 무시한 일이 있어."

"저도 알고 있죠. 그때 제가 왕비님을 위로해 드렸으니까요."

"나를 무시했으니 무슨 방법으로 혼을 내줄까?"

"가장 좋은 방법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수모를 당할 때 잊어버리려고 노력해요. 그러다 보면 정말로 잊어버리게 되죠."

"난 절대로 잊을 수가 없어. 내 진심과 호의를 걷어찼으니까. 그런 모욕은 난생 처음이었어."

그제야 우두머리 시녀가 눈치를 채고 말했다.

"왕비님, 혹시 꾸날라 부왕님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대왕님이 계신데 어찌 꾸날라를 사랑하겠어. 가끔 꾸날라를 불러 함께 있고 싶었을 뿐이지."

"꾸날라 부왕님의 어디가 마음에 드시는지요?"

"꾸날라의 큰 눈, 그 눈을 보고 나는 반했어. 아니 그 눈이 나를 유혹했어."

"그래도 왕비님은 꾸날라 부왕님의 눈을 결코 차지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모욕당했다고 분해하시는 거예요."

"무슨 방법이 없을까?"

"꾸날라 부왕님의 눈을 없애버리면 되죠. 꾸날라 부왕님에게 눈이 없다면 다시는 생각나지 않을 것이고 모욕 받았다는 생각도 차츰 사라질 거예요."

"오, 너는 어찌 그렇게 내 마음을 꿰뚫어보는지 놀랍기만 하구나."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화근은 빨리 없애버리는 것이 좋다고 하셨어요. 그것이 행복해지는 길이래요. 화근은 시간이 지날수록 불행을 키운다고도 했어요."

"훌륭한 아버지군. 절대로 그 말을 잊지 않겠어."

"왕비님, 그러셔야 해요. 제가 도와드릴 게요."

"침실 우두머리 궁녀로 가서 내가 거짓왕명을 만들어 줄 테니 국새만 찍어 주면 돼."

"대왕님 몰래 찍는 거군요. 저는 왕비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 그렇게 하겠어요."

"고마워."

띠쉬아락시따는 우두머리 시녀를 즉시 아쇼까왕 침전 침실 우두머리 궁녀로 보냈다. 이미 만들어놓은 아쇼까왕의 명령서를 그녀에게 쥐어주는 것도 잊지 않았다. 아쇼까왕의 명령서에는 다음과 쓰여 있었다.

〈꾸날라는 띠쉬아락시따 왕비를 유혹한 죄를 저질렀다. 나는 너를 한때 사랑했으므로 죽이지는 아니하되 두 눈동자를 뽑아 다시는 왕비를 유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너를 즉시 탁실라에서 추방하노라.〉

아쇼까왕이 드나드는 침전 침실의 우두머리 궁녀가 된 그녀는 사흘 만에 띠쉬아락시따가 조작한 왕의 명령서에 국새를 찍어 가져왔다. 그녀의 민첩한 행동에 띠쉬아락시따는 감탄했다.

"화근은 빨리 없애버리는 것이 좋다는 네 말이 위로가 되었어."

"잘 하셨어요. 왕비님."

띠쉬아락시따는 그녀의 두 손을 잡고 고마움을 표했다. 그녀가 나가자 이번에는 탁실라 특사 일원으로 가는 친위대 조장을 불렀다. 친위대 조장은 왕궁 중에서 특히 띠쉬아락시따 왕비 별궁의 경비를 감독하는 책임자였다. 아쇼까의 명에 의한 일이지만 친위대 조장이 왕비 별궁의 경비를 감독하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었다. 띠쉬아락시따는 친위대 조장을 자주 불러 선물을 주었다. 그런 이유로 친위대 조장은 어느 새 그녀의 사람이 되어 있었다.

"조장님, 이 밀봉한 봉투에는 왕명이 들어 있습니다. 대왕님께서 무슨 까닭인지 특사 일행이 탁실라를 떠날 때 꾸날라 부왕에게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부왕을 격려하는 취지로 가는 특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왕비님."

띠쉬아락시따가 친위대 조장에게 금으로 만든 코끼리상을 또 선물했다. 그러자 친위대 조장은 황공해 하면서도 스스럼없이 선물을 받았다. 친위대 조장의 표정을 살펴본 띠쉬아락시따는 밀봉한 봉투가 꾸날라 부왕에게 잘 전달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안도했다.〈계속〉

